

공산당의 <무신론>은 민족 문화를 훼손시키는 독약 (련재-10)

6. 생명의 회귀(回歸)와 무신론의 천적(天敵)

이렇듯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시작한 지 벌써 5 년이 지났다. 중공은 파룬궁을 소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썼지만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수련인의 박해에 참여하여 두 손에 피를 묻힌 흉수(凶手)들로 하여금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다. 파룬궁 수련생들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여 이미 80 여 개 나라 여러 민족에 분포되어 있다. 중공은 리홍지대사(大師)의 저서를 출판하지 못하게 했지만, 지금 리대사(大師)의 책은 이미 30 여개 국가의 문자로 출판되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오로지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 선량한 민중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고 눈도 깜짝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가장 사악한 깡패들에게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으며 또 “소멸”되지도 않은 맨 주먹인 그들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사실 이 자체가 바로 “신”의 힘과 지혜가 세간에서 진실하게 체현된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상이던 두려워 하지 않는다. 부강한 국가일수록 신앙의 자유를 더 제창하고 허용하는데 비해 오직 공산당만이 이처럼 방자하고 오만하게 억지로 사람의 사상을 없애려고 한다.

공산주의 피해자기념비 개막식 거행

2006 년 6 월 12 일 오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공산주의피해자기념비 개막식을 거행했다. 미국대통령 부시는 연설에서 공산주의는



20 세기에 1 억을 넘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갔고 그 중 중국은 수천만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된것은 자손후대들로 하여금 20 세기의 교훈을 잊지말고 이런 죄행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악과 증오를 기초로 한 공산주의는 아직도 이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오직 사악한 령체만이 이런 욕망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실패하였고 불안속에 떨면서 신의 심판과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7. 맺는 말

중국 전통문화는 5 천년 동안 온갖 시련을 다 겪으며 전해져 왔는데 오늘날 중국 공산당의 손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파괴되었다. ‘파룬궁’의 최근 5 년동안 피와 생명을 바치면서 걸어 온 길을 살펴보면 중국공산당은 바로 민족을 훼손시키는 사악한 령체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것과, 수련과 정념은 부정할 수 없으며 동요시킬 수도 없음을 입증시켰으며 생명이 반본귀진 하려는 힘은 전승할수 없다는 점 등등 아주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중국 전통문화중의 정수, 중화민족 전통중의 훌륭한 품성, 중화민족중에서 세세대대 전해오면서 칭송하던 영웅인물의 이야기들이 일반 민중인 파룬궁 수련생들에 의하여 진실하게 실증되고 있다. 중국문화는 이제 곧 근본적으로 개편되어 신비한 면사포를 벗게 될 것이다.

“못 사람 속에서 그대를 찾아 천백 번 헤매었는데 갑자기 뒤돌아보니 바로 등불 빛이 희미한 곳에서 있구나.”재난의 여파 속에 법광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끝)

도금축제(淘金节) 대시위행진에서 파룬궁이 최고상을 획득

2007 년 7 월 19 일, 캐나다 도금축제에는 애드몬시에서 서막을 열었다. 그날 참가한 102 개 시위행진대오중에서 유독 파룬궁행열이 올 시위행진에서 최고상과 문화유산상을 획득했다. (오른쪽사진 참조)



시위행진하고 있는 파룬궁대오



연길시에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

최근 연길시 여러곳에서 우담바라 꽃이 피어났다. 불경(佛经)에 기재된데 의하면 우담바라꽃은 3 천년에 한번씩 피어나는데 파룬성왕이 인간세상에 내려와 사람을 제도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사진 1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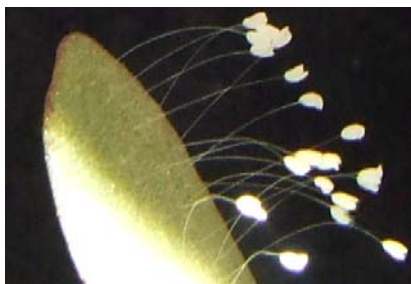


사진 3

악보받은 치보주임 김인옥

원 연길시연남가 장릉거민위원회 치보주임 김인옥은 1999 년 7 월 20 일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후 그는 대법제자들의 검은 명단을 작성하고 집집마다 다니며 대법책과 파룬궁진상 자료를 몰수하여 가도판사처에 바쳤으며 마당과 길가에서 주은 파룬궁진상전단지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의 남편도 총집벽과 전주대에 붙은 파룬궁진상전단지를 삽으로 끌어버렸다. 금년 7 월 김인옥은 간장, 위장, 심장 합병증에 걸려 밥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온몸이 아프고 힘이 없어서 밥도 지을수 없었다. 그의 남편은 지금 뇨독증에 걸려 치료비 2 만여원을 썼지만 아직도 완쾌되지 못했다. 각성하라!



법륜대법이 전세계에 널리 퍼졌다



리홍지사부님께서는 1992 년부터 대법을 전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5 년이 지났다.

그의 주요 저서 <전법륜>, <법륜공>은 30 여종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 각국에서 출판 발행되고 있으며 전세계 80 개 나라에 전파되어 1 억이 넘는 사람들이 “진선인”을 수련하고 있다.

위조해낸 특급 영웅 왕결(王杰)

왕결은 제남군부의 한 탱크사공정반 반장이었다. 당시 장루항 무장부의 초청을 받은 왕결은 지뢰폭발훈련을 할때 민병들더러 빙 둘러서서 자신의 시범을 보라고 했다. 그런데 왕결은 조작규정을 위반하고 폭약주머니로 시범했다. 갑자기 왕결이 잡아당긴 인화관에 불꽃이 튕겨 도화선에 불이 달렸다. 왕결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폭약주머니에 덮쳐들었다. <광!>하는 소리와 함께 왕결은 폭발해 죽었다. 10 여명 민병들도 중상을 입었다.

탱크사총부는 왕결의 죽음에 대해 <조작 규정을 위반하여 조성한 책임사망사건>이란 공식결론을 내렸다. 왕결의 추도회에서 영급 정위는 추도사연설에서 <왕결동지는 이번 민병을 돕는 훈련중에서 반장이고 기술능수로서의 직책을 잊고 발생하지 말아야 할 악성 사고를 빚어내어 부대건설과 인민군중에게 손실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968 년 9 월 하순에 인민일보,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도리어 왕결의 일기를 정면으로 대폭 보도했고 유관부문에서도 새로운 정치형세에 맞추어 <왕결은 조작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인화관장치가 기한이 지나 효능을 잃었을 뿐이다. 왕결은 모택동사상의 지도하에 불에 달린 폭약주머니에 덮쳐들어 사람을 구한 훌륭한 공산주의 전사>라고 새롭게 평가했다. 이렇게 위조해낸 특급영웅 왕결의 사적은 고무풍선 마냥 커져만 갔고 중공은 이를 이용하여 민중의 사상을 기만하고 독해하였다.